

# 2024년 12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국명 : 대전MBC

## 1. 회의개최

연번	일시	장소	참석인원				회의형태		
			시청자 위원 (참석인원/ 총인원)	방송국		총 인원 (명)	대면	온라인	서면
				경영진 (명)	경영진 외(명)				
1	'24.12.23.	대전MBC 4층 회의실 (대면회의)	7/10	6	1	14	○		

### ○ 회의 참석자 명단

#### ① 시청자위원 명단

손병우 위원장, 박주영 부위원장, 이인복 위원,  
이진희 위원, 김미화 위원, 이섬교 위원, 정성일 위원

#### ② 방송국 관계자 명단

- 경영진 : 진종재 사장, 서주석 전략기획실장, 이은표 경영국장,  
임세혁 편성국장, 김지훈 보도국장, 정수진 인프라국장
- 경영진 외 : 이재근 실무담당

##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4	3	-	1	8	-	8

### 나. 사업자 반영

구분	수용	의견참고	반론	합계
건수	8	-	-	8

## 다. 전월(11월)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월
보도	<천변고속화도로 관련 보도> 민자 사업 관련해서 우려한 수익보장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후속 보도해 주기 바람	천변 고속도로 관련 민자사업 문제는 시민 열세가 투입된다는 지적이 있어서 뉴스뿐만 아니라 토론프로그램에서도 의제로 다룰 예정임 <24. 12월 조치>	'24.11월
보도	<유기견 입양 캠페인 보도> 유기견 입양 캠페인을 시청했는데 이 캠페인을 확대하면 좋을 것 같음	유기견 입양 캠페인에 대한 반응이 좋으면 별도 콘텐츠로 채널을 만드는 등 활성화 시킬 예정 <24. 12월 조치>	'24.11월
보도	<대전교도소 재소자 폭행 관련 보도> 재소자나 범죄자에 대한 인권문제가 왜곡 평가되지 않게 우리 사회가 범죄자의 인권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후속 보도로 다루면 좋을 것 같음	대전교도소 재소자 폭행 보도는 인권 감수성에 대한 부분도 있어서 신경 써서 보도했고 인권위 직권조사 등 후속 보도도 이어갈 예정임 <24. 12월 조치>	'24.11월
보도	<미담 뉴스 관련 보도> 일주일 동안 뉴스를 분석했는데 전체 78개 중에 좋은 뉴스는 7개 밖에 없음. 미담을 전하는 코너를 고정화하면 좋을 것 같음	뉴스 분석 감사드리며, 미담도 체계화 돼서 보도될 수 있는 코너를 검토하겠습니다. 뉴스에 연말 이웃돕기 QR자막을 통한 기부 연계 시도 예정임 <24. 12월 조치>	'24.11월
보도	<청소년 도박 관련 보도> 학생들이 도박을 많이 하고 있고 학교폭력과 연결되는 심각한 상황을 봤는데 후속보도에 주면 좋을 것 같음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해 충격을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건팀에 전달하겠습니다 <24. 12월 조치>	'24.11월
보도	<지역 시국선언 관련 보도> 서훈은 맞불시위가 이슈가 되고 있고 지역의 움직임이 궁금했는데 관련된 보도를 해줘서 잘 봤음.	지역에서 시국선언은 대전MBC만 리포트를 제작하고 있는데 지역 시국선언 내용을 꾸준히 담아서 보도할 예정임 <24. 12월 조치>	'24.11월
보도	<날씨 관련 보도> 뉴스에 날씨 코너가 없어서 아쉬움. 날씨에 민감한 사람을 위해 기간을 정해 날씨보도를 해주었으면 함	뉴스 기상캐스터 문제는 고민중이며 현재는 하단 자막으로 날씨와 기온을 표시해 주고 있는데 추후 기상캐스터 도입 등을 논의하겠습니다 <24. 12월 조치>	'24.11월
보도	<노동자 사망 사건 보도> 정림동 노동자사망 사건 관련해서 후속보도를 두 차례 진행했는데 진상규명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정림동 노동자 사망 사건은 현재 경찰에서 수사중임. 어떻게 경찰 수사가 이뤄지는지 후속 보도를 이어 가겠습니다 <24. 12월 조치>	'24.11월
보도	<뉴스 시작 전 앵커 장면> 뉴스 생방송 시작 전에 앵커가 입을 푸는 장면까지 송출되던데 주의가 필요해 보임	뉴스 생방송 준비 모습과 관련해서 프리샷이 잡힐 때 입을 푸는 모습이 담겼는데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24. 12월 조치>	'24.11월
교양	<쇼츠와 릴스 재생산> <시시각각>의 특징적인 부분을 집약적으로 재생산해서 릴스를 통해 젊은 층까지 전달 하는게 좋았음	<시시각각> 릴스 제작은 연출자가 직접 하고 있는데 이슈를 잡아서 시청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지속적으로 제작할 예정임 <24. 12월 조치>	'24.11월
교양	<건강플러스 세트> 세트가 연두색 한 가지 색으로 되어 있어 눈이 피로한 것 같음. 세트에 다른색을 섞어도 좋을 것 같음	<건강플러스> 세트의 장점은 글자의 시인성이 좋고, 단점은 시각적 피로감이 있음. 다음 제작시 참고하겠습니다. <24. 12월 조치>	'24.11월
교양	<레일 이즈 백 관련> 대전역이 전소된 사진을 찍은 날짜가 1950년 7월 19일이 아닌 1951년 6월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 왜곡될 수 있어서 지적함.	폐허가 된 대전역 사진에 대해 역사적 사실이 맞지 않다면 다시 조사해서 정확하게 바로 잡고 재방송에 반영하겠습니다 <24. 12월 조치>	'24.11월
교양	<인생내컷> 독립서점 이야기 좋았음. 도전하는 젊은이의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이 더 많았으면 좋았음.	앞으로도 <인생내컷>에서 세대간의 통합과 지역의 희망을 많이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 12월 조치>	'24.11월
기타 (시청자제시편)	<영상구입 문의> 80년대 영상 구입에 대한 질문에 답변은 한 건지? 자료 보관기간을 공지하면 어떨지?	해당 자료가 보관되어 있지 않다고 답변을 했고 자료를 특정하기가 어려워 문의 시 친절하게 답변하겠습니다 <24. 11월 조치>	'24.11월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청 내용	조치 내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임기: 2000.0 ~ 2000.0)

성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비고(임기)
		해당사항 없음		

3. 시청자위원회 운영 효율성

평가기준	해당여부
2024년 12월에 집계된 시청자 불만사항 회의 전 고지	○
시청자위원 및 임원진이 함께 공유하는 온라인 대화방 개설	○

4. 기타사항

- 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항  
- 대전MBC 홈페이지 공개

나. 시청자위원 명단 (임기 : 위원별 상이)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문	비고(임기)*
위원장	손병우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사)한국언론정보학회	언론단체	23.05.01~25.04.30
부위원장	박주영	대전지방변호사회 부회장	대전지방변호사회	변호사단체	23.05.01~25.04.30
위원	장래숙	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장	대전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단체	23.05.01~25.04.30
위원	김영진	사회적협동조합혁신청이사장	대전청년내일센터	소외계층대변	23.05.01~25.04.30
위원	이인복	원도심문화예술행동사무국장	원도심문화예술행동	문화단체	23.05.01~25.04.30
위원	윤지석	대전광역시시의사회 부회장	대전광역시시의사회	과학기술단체	23.05.01~25.04.30
위원	이진희	대전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협회장	대전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인권단체	23.05.01~25.04.30
위원	김미화	대전YWCA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장	대전YWCA	여성단체	24.05.01~26.04.30
위원	이성교	재능나눔 징검다리 회장	재능나눔 징검다리	청소년단체	24.05.01~26.04.30
위원	정성일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기획홍보팀장	민주노동당 대전지역본부	노동단체	24.05.01~26.04.30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구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	답변내용	비고		
			수용	참고	반론
보도	<에너지 기획 보도> 에너지 기획 보도는 석탄발전소가 있는 우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심도 있게 다뤘다고 생각함. 별도의 프로그램을 제작하려고 준비하는 건지?	회의록 첨부	○		
보도	<12.3 내란 용어 사용> 12.3 내란이라는 용어 사용 관련해서법조계의 시각도 내란죄 가능성이 높다고는 하지만 법률적인 판단이 나오기 전의 용어를 뉴스에서 사용해도 되는지 의문이 듭	회의록 첨부	○		
보도	<시민이 되살린 민주주의 연속보도> 전국적인 뉴스의 흐름에 휩쓸리기 보다는 우리 지역의 특색을 잘 조명해 주었는데 여러 명의 기자가 필요한 이유를 들어보고 싶음	회의록 첨부	○		
보도	<시청자게시판 관련 의견> 서울MBC 뉴스데스크 <집중취재> 리포트 중간에 대전 지역 방송으로 넘어가서 아쉽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대전지역 사업주의 문제인 만큼 오해가 없도록 대전MBC 차원의 재보도 의견을 드림.	회의록 첨부	○		
교양	<시시각각 구성 관련> 탄핵정국에서 지역의 과제를 다룰 때 토론보다는 나열식의 방송을 했음. 토론프로그램답게 논쟁을 중심으로 구성했으면 좋겠음	회의록 첨부	○		
교양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지역민이 주인공이라는 설정으로 22편의 캠페인 내용이 좋았음. 좀 더 다양하게 주인공이 되는 캠페인 진행을 제안함	회의록 첨부	○		
교양	<이종수 도예가 다큐멘터리 관련> 대전시 이종수 도예가 미술관 건립관련해서 진행이 잘 안되고 있는데 기금이 지원된다면 이종수 도예가 다큐를 제작해서 기록으로 남겼으면 함	회의록 첨부	○		
기타	<프로그램 아이템 검색> 아이템으로 프로그램을 검색하면 뉴스가 검색이 되고 프로그램 조회는 어려움. 키워드 등을 넣어서 찾는 서비스가 되었으면 함	회의록 첨부	○		

## 2024년 12월 대전MBC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 일시 : 2024년 12월 23일(월) 오후 4시

□ 장소 : 대전MBC 4층 대회의실

□ 시청자위원회 참석자 : (총 7명)

손병우 위원장, 박주영 부위원장, 이인복 위원,  
이진희 위원, 김미화 위원, 이섬교 위원, 정성일 위원

□ 회사 참석자 : (총 7명)

진종재 사장, 서주석 전략기획실장, 이은표 경영국장, 임세혁 편성국장,  
김지훈 보도국장, 정수진 인프라국장, 이재근 실무담당

□ 회의록 전문

이은표 경영국장

지금부터 12월 시청자 위원회 정기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총 위원 10분 중에 7분이 참석하셨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시청자 게시판 의견 접수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따로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대전MBC 진종재 사장님께서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종재 사장

바쁘신 와중에 시청자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마지막 위원회인데요. 1년을 마감하면서 돌아보니 위원님들께서 분에 넘치는 칭찬과 세심한 지적, 평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과분한 칭찬과 관심을 주신 점 대표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자체 평가를 해도 프로그램별로 성과가 있기도 했고 또 지역 방송으로서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짧게 공유 드릴 것은 오늘자로 신입사원 네 명을 뽑았습니다. 내부적으로 새로운 분위기가 내년엔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요. 오늘도 좋은 의견들 부탁드립니다.

이은표 경영국장

이번에는 시청자 위원회 대표해서 손병우 위원장님 인사 말씀 후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손병우 위원장

12월 시청자위원회에서 대전MBC 우수프로그램 한 편을 선정해서 시상하기 때문에 다른 달에 비해 각별한 기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대전MBC 시청자위원회의 전통

을 이어받아 이번에도 열심히 우수프로그램을 선정한 것 같습니다. 세 편의 프로그램이 팽팽하게 다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서 처음에는 그 세 편으로 갈려서 정말 선정하기가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진출한 토론들이 이어지면서 <레일 이즈 백>으로 의견이 일치되어 가는 아주 멋진 토론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시청자위원회 수상작을 선정하는 과정과 비교해도 자체적으로도 진화가 있지 않았나 하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좋은 제작진이 좋은 작품을 만들어 주셨고 또 알차게 시청자위원회가 좋은 작품을 제대로 선정한 것 같습니다.

2024년에 저희 시청자위원회도 기여를 잘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고 내년에도 이런 흐름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모니터 분석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복 위원님부터 말씀 해주시죠.

이인복 위원

<시시각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시각각이 보도국 토론 프로그램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12월 12일에 탄핵 재표결에 대한 충청의 민심을 다룬 내용은 정말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 토론이 잘 이뤄졌던 것 같아서 인상 깊게 봤는데요. 22일에 탄핵 정국에서 지역의 과제를 다룰 때에는 토론보다는 과제를 나열하는 식으로 방송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토론 프로그램답게 논쟁을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대전MBC 홈페이지에 대해서인데요. 프로그램을 찾아보려고 하면 뉴스는 검색이 되는데 프로그램은 따로 조회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청양 구기자를 다룬 적이 있을 텐데 조회를 해보면 뉴스 외에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편성국에서 제작된 프로그램도 키워드, 대본과 같이 업로드 해서 지난 방송을 찾는 서비스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2024년도에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셨고 25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부탁드립니다 싶은 것은요. 대전엔 어떤 문화가 있는지 알리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술과 관련된 캠페인을 매년 말씀드렸는데요. 내년엔 <우리 그림을 선물합시다> 캠페인으로 그림 선물 문화를 만드는 데 대전MBC가 앞장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손병우 위원장

이어서 박주영 위원님 말씀해주시죠.

박주영 위원

탄핵과 비상계엄이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끌어들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교과서 문제, 헌혈 부족, 전시회 소개 등을 다루셨어요. 특히 에너지 기획 보도가 석탄 발전소가 있는 우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별도의 프로그램을 제작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요. 현재 상태에서 환경과 에너지 전환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다뤄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맞고 틀림의 판단을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12.3 내란이라고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내란이라는 것은 법률적인 판단을 전제로 한 용어인데 뉴스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나... 사실 표현에 있어서 12.3 비상계엄이 맞을 것 같은데... 물론 내란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기는 한데 확정적인 법적 판단이 나오기 전에 법적 판단이 들어 있는 용어를 뉴스에서 써도 되는가 라는 의문도 들었고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병우 위원장

이어서 이진희 위원 말씀해주시죠.

이진희 위원

이번 달은 시국에 대해서 집중했던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뉴스도 명확했고요. 저는 언론이 중립적 입장보다는 어떤 판단을 해서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뉴스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졌던 게 굉장히 의미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시각각> 내용도 보충적인 역할로 함께 주제를 이끌고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7일에 현충원에 문헌 내란범 문제를 보도를 통해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보도에서 그치지 않고 해결까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라라사운드>, <인생내컷>, <연중캠페인> 등 따뜻한 프로그램들도 겸비해서 12월에는 균형이 잘 맞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손병우 위원장

총평 고맙습니다. 김미화 위원님 말씀해주시죠.

김미화 위원

<시시각각>과 뉴스를 중심으로 봤습니다. 12.3 사태 이후에 시시각각에서 두 차례 토론을 진행했어요. 일반인이 잘 모르고 워딩으로 표현되지 않았던 부분을 정리해주신 것과 지자체장, 시의회의 정치적 의견 부재를 문제점으로 짚은 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민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민 의견까지 대변하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12.3 사태 이후에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소비심리 위축, 소상공인 매출 감소, 소방 출동 건수 감소 등을 이야기 하면서 중구청에서 한 달에 두 번 주변 상권을 이용하고 있고, 관련해서 추경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행정적 부분까지 제안해 주셔서 의미 있었다고 봅니다.

에너지 기획 보도도 기술 혁신을 위해 공정한 기업 투자에 관심을 가져야 함과 해외 인터뷰를

수록해주신 점이 잊지 않아야 할 부분을 짚어준 것 같아 좋았습니다.

그리고 12월이다 보니까요. 기부 후원 사례나 임산부 100원 택시, 세종 반다비 병상장 장애인 이용 현실, 대전 교도소 재소자 폭행 등에서 취약 계층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도해 주신 점이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우 위원장

초점을 잘 잡아주셨습니다. 이어서 이섬교 위원님 말씀해주시죠.

이섬교 위원

보도와 함께 두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연중캠페인 <당신이 주인공입니다>인데요. 총 22개의 동영상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데, 함께 사는 사회가 어떤 것이며 그들이 어떻게 주인공이 되는지 짧은 시간에 강한 인상을 남겨서 참 좋았습니다. 처음으로 감명 받은 것은 119 소방악대였고 서산 탈 시설 장애인에 대한 내용도 좋았습니다. 아이와 함께 봤는데 짧은 시간 동안 함께 사는 사회가 어떤 것이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주인공이 되는지 강한 인상을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민이 주인공이라는 설정으로 다양한 직업과 계층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며 대전MBC가 함께 사는 사회라는 따뜻한 가치를 알려준 것 같습니다. 22편이 아니라 좀 더 다양하게 많은 분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캠페인을 진행하면 어떨까 제안해봅니다.

12월 19일 목요일에 방영된 <오늘M> 문화가 소식에서 발달장애 아티스트 공감전을 다뤘습니다. 발달장애 청소년 13명이 미술전시회를 열고 그림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장면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름 아래에 발달장애 아티스트라고 표기해주었는데 그 부분도 인상 깊었습니다. 발달장애 아티스트의 어머님들에 대한 인터뷰도 같이 담았는데 어머님들과 아이들의 인터뷰를 통해 발달장애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가 수면 위로 올라온 것 같아서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보도를 통해 나올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따뜻하고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우 위원장

아주 섬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정성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정성일 위원

시청자 의견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11월 26일 회의 이후 올라온 의견이 있었거든요. 11월 27일 서울MBC 뉴스데스크 <집중취재M> "개네들 좀 혼내라" 임금체불 하고도 막말·사장님의 정체는? 리포트 방송 중간에 대전 지역 방송으로 넘어가면서 이에 대한 아쉬움을 전하는 그런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그에 대해 대전MBC는 '가짜 5인 미만 업체 전수 조사해야' 라는 제목으로 기 송출된 사안이라고 답변하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19일, 20일에 방송된 뉴스투데이를 봤는데 정확히 일치하는 보도라고 보기에는 어려웠습니다. 대전MBC가 보도한 기사는 단순 기자회견에 대한 단신으로 내보낸 보도이더라고요. <집중취재M>에서 다른 노동자의 피해와 사업주 태도에 대한 보도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시청자 입장에서 지금과 같은 답변은 상처가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근로감독관과 사업주의 유착 관계도 의심 가는 상황에서 대전MBC가 이렇게 답변을 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전지역의 일이기도 하고 어느 식당인지 알겠는데 추후에 대전 MBC 차원에서 이에 대한 재취재 또는 집중취재를 재보도하는 방식으로 오해를 풀고 신뢰를 되찾았으면 하는 의견을 먼저 드립니다.

12월 탄핵 정국 속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보도를 하시느라 고생 많았고 시민으로서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저도 시민 기자로서 대부분의 현장에 있었는데요. 대전MBC가 빠짐없이 취재를 한 것 같아서 뿌듯하고 고맙습니다. 재조사 집단 폭행 사건 목요일론인상 수상도 축하드리고요.

다른 방송사와 달리 탄핵 정국에서 시국 선언에 대한 보도도 적극적이었고요. 계엄 이후에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목소리를 잘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계엄 선포 이전까지는 짧은 기간이었는데도 3건의 보도가 있었고요. 선포 이후에는 19건, 탄핵 소추 무산 이후에는 33건, 가결 이후에는 25건의 보도가 나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내용 면에서도 지역 정치인뿐만 아니라 교사, 교수, 종교인, 시민, 대학생, 소상공인 등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냈고요. 지역 특성에 맞게 과학계의 목소리를 담은 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대전 청사에 위치한 국가기록원 12.3 내란 관련 기록물 부분과 윤대통령 부친의 고향인 논산에서 취재했던 점도 지역에 맞게 취재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전 현충원 보도를 통해 향후 내란범이 제대로 처벌받지 못할 시에 대전 현충원 안치 가능성에 대한 저희들의 주장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기획 보도를 통해 다양한 목소리와 문힐 수 있는 미담도 풍부하게 잘 다뤘던 것 같습니다. <시시각각>에서도 이 이슈를 놓치지 않고 잘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교복 카르텔 문제였거든요. 학부모로서 교복 카르텔 문제도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을 주제로 4차례에 걸쳐 기획보도를 하신 점도 좋았습니다. 시민들의 답답함에 위로를 주는 보도였던 것 같습니다. 윤소영 기자에게 감사드리며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김용균 씨 6주기 추모제도 잊지 않고 보도를 해주셨고요. 현대제철 당진 공장 노동자 사망 사건 보도 이후 18일에 김용균 땀방이 낀 인재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이어나가면서 거대 기업에 맞선 노동자와 유가족들의 싸움이 무모할 수도 있지만 세 차례나 보도를 해주었고, 무산되었던 고용노동부 합동 수사가 오늘 진행된다는 보도까지 잘 보았습니다.

AI교과서 관련해서도 보도하신 걸로 아는데요. 최근 AI 교과서 도입이 굉장히 갑작스러운 문제였는데 도입을 검토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이라는 우려에 대해 세 차례 보도와 <시시각각> 토론으로 다루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학교는 1월에 AI교과서를 선정하라는 지침을 교육부로부터 받았는데 국회에서는 AI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정의하면서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AI 교과서들을 검토해 봤을 때도 해당 교과서들은 AI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되어 있지 않은 스마트 디지털 학습기 수준으로 확인 되었는데 AI 관련 사기가 많은 오늘날 이렇게 급작스러운 교과서 선정이 의심되는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잘못된 선택이 되지 않도록 AI교과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병우 위원장

조목조목 말씀을 잘해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분석보다는 느낀점을 말하겠습니다. 큰 사건이 터지면 뉴스는 그것을 다루게 되는데요. 보통 전국적으로 큰 사건이 터지면 서울 언론 동향을 그대로 이어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이 되살린 민주주의 연속보도와 트랙터 시위 등 대전, 충남, 세종 지역의 특색에 집중하신 것 같습니다. 트랙터가 영남하고 호남에서 올라와서 대전과 세종에서 한 바퀴 돌고 갔다는 보도는 우리가 해야 하는 역할이 딱 맞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는 사례를 보여주신 것 같고요.

시민이 되살린 민주주의 관련 보도 역시 전국적인 뉴스의 흐름에 휩쓸리기 보다는 우리 지역의 특색을 조명하는 역할을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대전, 충남, 세종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 할 때는 대전MBC를 봐야만 하는 훌륭한 역사적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장 취재를 위해 여러 명의 기자가 출동을 하셨는데요. 이런 아이টে임을 위해 왜 기자가 여러 명이 필요한지 현장의 목소리도 들어보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김지훈 보도국장

먼저 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희가 12월 3일 계엄 선포 이후에 아침, 저녁으로 계속 시민들의 항의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팔로우 하려면 최소 2~3명이 필요하고 저녁 생방송에도 별도의 팀이 필요합니다. 카메라기자도 마찬가지로겠지만 취재기자 전체인력이 투입되지 않으면 커버가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탄핵 정국 속에서 평소보다 한 두 꼭지 더 많이 뉴스를 진행했습니다. 시민들의 분노가 3~4꼭지로 담아내기에는 그 심도가 너무 깊고 들볼처럼 번졌기 때문에 좀 더 다방면으로 다양하게 깊게 다루기 위해 모든 취재 인력이 투입되었습니다.

지난 달 회의가 끝난 후 올라온 <5인 미만 사업자 문제 보도>에 대한 시청자의견에 대해서 정성일 위원님이 신랄하게 짚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때도 시국 선언이 지역에서 크게 있었고, AI도 발병하고, 대전교도소 교도관도 송치되었고, 이렇게 다뤄야 할 뉴스와 더불어서 중요한 것은 방송발전기금을 확대해서 지역 방송에 재투자하겠다는 전국 폴 리포트가 추가되면서 저희 자체 뉴스 분량이 길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서울 큐시트 상 앞서 있었던 게 밀리면서 저희 뉴스가 중간에 들어가지 않으면 제대로 송출되지 못하는 상황여서 부득이하게 절반 정도밖에 송출을 못했던 상황이 빚어진 것 같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서 지금 조사하고 있다고 성명이 나오는 것도 봤요. 다시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보도를 검토하겠습니다.

대전현충원 관련 책을 내셨다는 말씀을 듣고 너무 좋은 내용이어서 뒤 늦게나마 보도를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 시청자의 호응도가 너무 좋았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감사드립니다.

12.3 내란이라고 표현한 점에 대해서는 8년 전 고민으로 올라가는데요.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집회 때 대전MBC를 비롯한 모든 MBC가 시민들에게 지탄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 11월부터 시국선언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보도국 취재기자들은 8년 전 과오를 되풀이 하지 말자는 반성의 차원에서 다른 지역 방송사와 달리 1차 시국선언부터 꾸준히 리포트를 진행했구요.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일주일 정도 지나서 이 사태를 시민들의 눈높이는 내란으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계속 비상계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게 맞는지 서울 보도본부에 논의를 해보자 했고, 시민들의 분노를 담아내는 게 맞는지 법률적인 한계에 맞춰 비상계엄으로 사용하는 게 맞는지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시민들의 눈높이와 일련의 과정들을 봤을 때 12.3 내란으로 MBC는 통일하자는 결론이 내려져서 그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8년 전에는 집회에 취재 갔을 때 지탄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카메라기자들한테 시민들이 커피나 손난로를 준다는 얘기를 듣고 대전MBC 뉴스가 시민들의 정서에 맞게 보도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에너지 기획보도도 호평을 해주셨는데요. 이 계기는 방송기자연합회라는 단체에서 해외 취재 지원이 있었는데 에너지 전환이라는 주제로 최기웅 국장이 응모를 해서 당선이 됐고, 방송을

전제로 영국 취재를 다녀와서 뉴스를 진행했습니다. 내년에 충청남도의 화두도 공정한 에너지 전환이어서 저희가 다큐멘터리 등 별도로 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진제철 노동자 문제도 오늘 뉴스를 할 예정인데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소외 계층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뉴스를 꾸준히 만들어가겠습니다.

<시시각각>에서 토론답지 못하다는 점은 저희가 생각하면서 풀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섭외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섭외에 응하지 않으셔서 반대쪽 의견들을 담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대한 논쟁다운 논쟁이 이뤄지는 공론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세혁 편성국장

<당신이 주인공입니다>캠페인은 나름대로 올해 히트작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내년에도 이와 비슷한 시리즈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프로그램 검색과 관련해서는 프로그램명까지로 들어가면 찾아지는데 아이টে만으로 검색하면 보도쪽이 먼저 보여지더라고요. 이 문제점도 해결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월 6일에 TV부분 개편을 하는데요. 라디오로 공동 제작했던 지역생존 프로젝트 <우리 고향 안녕하십니까>를 TV판으로 만들어서 1월 9일 저녁 9시부터 12부작으로 방송될 예정이고요. 시니어TV에서 제작한 <은퇴설계 노하우>라는 프로그램을 교환 방송할 예정인데 은퇴를 앞두신 분들의 재테크나 여러 가지 대비책을 담고 있고 일요일 아침 7시40분에 방송할 예정입니다. <오늘M>과 <인생내컷>, <건강플러스>제작진도 대폭 교체했습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께 선 보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충남교육청이나 대전교육청에서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 일들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학교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습을 담은 학교물을 제작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청과 함께 협업할 건데요. 학교에 중계차를 가지고 찾아가서 떠들썩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의견도 솔직하게 얘기도 하고, 학생들 장기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표 경영국장

추가 질의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성일 위원

질의를 아니고요. 탄핵안 가결될 때 저도 현장에서 촬영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가장 많은 시민이 모여 있을 때잖아요. 그 때 뉴스 화면을 보여주는데 MBC였거든요. 시민들이 느끼기에

MBC를 보여주는 게 가장 좋겠다는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한 번 더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인복 위원

대전에서 이종수 도예가 미술관 건립을 한다고 했는데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도예가 미술관을 운영한 사례가 아직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흐지부지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가능하다면 이종수 도예가의 다큐를 제작해서 기록으로 남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예가의 작품이 영국에 굉장히 많이 가 있고 그쪽과 교류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해외 내용도 같이 담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기금 사업이 있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이은표 경영국장

참고로 저희가 이종수 도예가 관련해서 15년 전쯤에 다큐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추후 다큐 멘터리 제작 여건이 된다면 과거 자료도 활용하면 더 실감이 날 것 같습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손병우 위원장님께서 마무리해 주십시오.

손병우 위원장

흔히 어느 프로그램 한 편을 평가하게 되면 교양성, 오락성, 시사성 모두 담기를 원하는데요. 또 어느 한 방송사를 평가하게 되면 그 방송사가 모든 걸 다 하기를 원하게 되고요. 언론이나 방송 문화의 균형이라는 것은 여러 방송사와 여러 구성원이 모여서 사회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것이고, 시청자들이 프로듀서나 기자, 또 방송사에게 기대하는 어떤 역할들이 모여서 사회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8년 전에는 MBC의 역할은 아마 그것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8년 후 지금의 MBC의 역할은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여받은 역할이 그 당시 시청자들에 의해서 돌팔매를 맞을 수도 있고 칭찬을 들을 수도 있죠.

지금 MBC는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자기 역할을 굉장히 정확하게 잘 수행하고 있고 큰 편향 없이 정확하게 균형을 잘 맞춰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인사말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표 경영국장

이어서 진종재 사장님 마무리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진종재 사장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 프로그램이나 보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상황속에서 구성원들은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별개로 회사와 관련된 생각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여러 가지 평가와 저희와 다른 견해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되고요. 8년 전과 다른 평가를 받더라도 이런 시기에 더더욱 방송이나 보도를 객관화시켜서 평가를 해보고 더 좋은 지역방송이 될 수 있도록 자만하지 않고

노력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표 경영국장

이상으로 12월 회의를 마치겠습니다.